
전체 주제:
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

메시지 14

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함

성경: 아 7:10-13, 고전15:58, 16:10, 엡4:12, 계2:4-5

- I.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에서 솔람미는 솔로몬의 동역자가 될 자격을 갖춘다.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연인이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하며 그분의 몸을 위해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—고전15:58, 16:10, 골4:11, 엡4:12.**
- II.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알아야 한다—엡 3:17상, 빌2:13.**
- A.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, 그분의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에게 넣는 일을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—갈4:19, 엡 3:17상, 4:16.
- B. 하나님의 일의 원칙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고 사람들을 얻음으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전진할 길을 갖는 것이다—행9:15, 13:1-2.
1. 올바른 우선 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—엡2:10, 빌2:13.
2.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일꾼들이 아닌 주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—엡2:10.
3.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가 우리가 맺는 열매를 결정한다. 우리의 인격이 그릇되었다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로 뭔가를 건축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—마7:17-18.
- III.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하려면 하나님의 일에 다음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.**
- A.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반드시 그분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—마15:13, 고전8:6.
- B. 하나님의 일의 진행은 그분의 능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—고전3:5, 빌3:10.
- C.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—요7:17-18, 엡 3:21.
- D.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이 시작할 수 없고,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수행될 수 없고,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.
- IV.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하려면 생활과 일과 움직임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—막1:14-15.**

- A. 주 예수님에게는 생활과 일과 움직이심에 차이가 없었다.
1. 주님께서서는 어디서나 항상 일하셨는데, 그것은 그분의 생활과 일과 움직이심이 항상 똑같았기 때문이다. 그분은 그분의 일, 그분의 사역을 사셨다.
 2. 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삶의 모든 방면이 똑같았다. 생활과 일에 차별이 없었다.
- B. 주님의 생활이 그분의 일이었듯이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일이어야 한다—빌1:20-21상.
- V.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하려면, 우리는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, 어떤 종류의 대우도 견딜 수 있으며, 어떤 종류의 환경도 받아들일 수 있고,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고, 어떤 종류의 기회도 받아들일 수 있는, 모든 것에 충분하고 모든 것에 성숙한 생명으로 일해야 한다—요14:6상, 행27:22-25, 고후6:1-13.**
- VI.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능욕을 저야 한다—히13:13, 롬15:3.**
- A. “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맨마지막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” —고전4:9.
- B. “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도다”—13하.
- VII.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의 일은 반드시 그분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—아7:10-13, 엡4:4, 16.**
- A. 일은 증가를 추구하는 몸이다. 일은 성장 안에서 뺏어나가는 몸이다—행13:1-2, 엡4:4, 16.
1. 일은 몸에서 생겨난 것이고, 몸 안에 있으며, 몸의 유익을 위해 일한다. 이 원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—12절.
 2. 몸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과 일을 지배하는 법칙이다—1:22-23, 고전12:4-6, 12-13, 27.
- B. 우리 안에 계시는 삼일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다—엡3:16-21, 4:4-6, 12, 16.
- C. 모든 동역자들은 유일한 몸을 위해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일을 해야 한다. 일의 출발점은 몸의 하나이다—엡4:4, 고전16:10.
- D. 술람미는 그녀의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곳 저곳에 유숙하며 온 세계를 위한 일을 수행하기 원한다. 이것은 우리의 일이 반드시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—아7:11, 엡4:12.
- VIII.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하려면 그분의 일이 있는 곳에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.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드러야 한다—아7:12, 막12:30.**
- IX. 우리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—계2::4-5.**
- A.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에서 나와 처음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이다.
- B. 우리가 주님을 위한 처음 사랑으로 충만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리라—엡3:19, 4:16, 고후5:14-15, 20.